나주시, 푸드업사이클링 산-학 상생 협력 강화

농축산 부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화 연구개발, 실증, 생산, 유통 협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에 발맞춰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산학 기관과의 협력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4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뉴트리어드바이저, 이화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푸드업사이클링 실용화를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업사이클링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특히 2026년까지 설립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상호 기관의 설비를 활용한 실증 및 생산과 푸드업사이클링 상용화 사업 추진, 협회 조직화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업사이클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푸드테크 10개 분야 중 하나로 농수축산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버려지는 식품 부위를 사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1천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기업 30개를 육성해 수출 20억 불 달성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나주시는 2024년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푸드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센터는 나주 일반산업단지 내 3417㎡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612㎡ 규모로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등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뉴트리어드바이저(대표 이지혜)는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K-미숫가루 연구개발을, 이화여대(식품영양학과)는 제품화를 함께 추진 중이다.

충북대학교(축산학과)와 경상국립대학교(동물소재공학과)는 학과 특성을 반영해 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협약을 통해 농산부산물 확보에서부터 가공,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시제품 양산 및 유통 등 푸드업사이클링 산업 전반에 걸쳐 각 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협약에 참여한 산업체와 대학교와 함께 푸드업사이클링 공동 연구개발, 기술 공유, 실증 및 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가 소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 유자 막걸리, 대한민국 주류 대상서 '대상' 수상

전통 누룩 이용, 부드러운 향과 단맛이 일품

전남 완도군의 고금주조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완도 유자 막걸리'가 '2025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 우리 술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고금주조장은 지난해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에 이어 연속 2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5 대한민국 주류 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조선비즈에서 개최하는 국내 대표 주류 품평회로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를 통해 주종별 최고의 술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236개 업체, 총 1,008개의 브랜드가 참가했다.

완도 유자 막걸리는 선대부터 빚어온 유자 막걸리에 전통 누룩을 이용하여 재탄생시킨 프리미엄 막걸리로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부드러운 향과 단맛이 일품인 탁주이다.

특히 완도 특산품인 유자의 상큼함과 완도 쌀 그리고 전통 누룩 술의 풍미가 어우러져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막걸리이다.

배준현, 류은주 고금주조장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완도 향토 기업으로써 100년 기업 목표와 더불어 전통주가 지역의 훌륭한 문화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빚어지는 전통주가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금주조장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양조장으로 '완도 유자 막걸리' 외에도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 '유자 막걸리' 등 품질 좋은 다양한 술을 생산 중이다.

완도/장광식 기자

성공 귀농어 행복귀촌, 고흥에서 함께 해요!

영농 노하우 맞춤형 전수→농어업 배움터 11개 과정 운영

고흥군(고흥군수)은 지난 14일 도시민 귀농어귀촌 농어업 배움터로 지정된 11개소 선도농가를 선정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배움터는 고흥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신규 귀농인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업 시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작물 재배 방법과 영농 기술을 배우는 소모임 체를 운영하여 우수인력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영농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선도농가와 고흥으로 이주한 귀농인을 1대 10으로 매칭해, 관심 있는 작목의 재배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며, 11개 작목(유자, 한우, 복숭아, 오이, 참다래, 백향과, 샐러드 채소, 단호박, 생강 등)에 대해 품목별 선도농가를 우선 선발하고, 해당 작목 교육을 원하는 귀농 연수생 중 최종 11팀을 선발했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농가의 시간을 고려해 유동적인 일정으로 총 10회(회당 4시간, 총 40시간) 운영된다. 교육은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40시간의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어업 배움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수생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 생활권 주변 쓰러질 위험 있는 나무 제거

1차 사업 55주 벌목… 추가예산 확보해 2차 추진 계획

장성군이 강풍, 폭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재해 위험 나무를 제거하고 있다.

대상은 민가 등 생활권에 가까운 수목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거나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나무다. 수령 50년 이상의 거목이나 사람들이 제거하기 어려운 나무들이 주로 해당된다.

전체 면적의 62.5%가 임야인 장성군은 산림에 둘러싸여 있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木)제거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다. 군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읍면 신청을 받아 34개소 110여 주의 재해우려목을 접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1차 대상목 16개소 55본을 선정하고 4000만 원을 투입해 3월 말까지 벌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업은 중장비 투입과 벌목 전문가 파견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나머지 나무들은 추가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우기나 태풍에도 모든 군민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우려목 제거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혜연 기자

무안군,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월 2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근로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안군 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무안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격 여부 조회 후 4월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영암군, 자체 점검반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30,559개 훼손·망실, 위치 적정 여부 점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월까지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주소정보시설물은 다양한 장소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사물주소판 등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주소정보시설물 30,559개의 훼손·망실, 위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영암군은 이번 일제조사의 예산 절감을 위해 담당 공무원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스마트KAIS'를 이용해 시설물의 현장 사진·상태를 실시간 입력해 주소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즉시 철거·보수를 진행하고,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은 신규 설치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정확한 주소정보는 군민 생활의 편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 소유지에 위치한 시설물 조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